

구라보 면합섬사업부 - “04 추동절 소재전” 개최

구라보의 면합섬사업부에서는 구라보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방직소재의 전시관을 뜻하는 “구라보 미방관(美紡館)”에서 “2004년 추동절 소재전”을 개최하였다. 이 소재전의 표제(表題)로 따스한 느낌을 주는 소재들의 “난감파(暖感派)”와 세련미를 자랑하는 소재들의 “세련파(洗練派)”, 구라보의 최고기술을 발휘한 소재들의 “기교파(技巧派)”의 3개 파의 시대의 정성을 담은 시대 감각을 원료에서부터 방적, 제직·편성, 가공에 이르는 일관된 기술력을 총동원한 소재로서 전시하였다.

“도쿄 텍스타일과(課)”에서는 가볍고 부드러운 특수방적사 “파논”을 사용한 직물을 처음으로 전시하였다. 울과의 복합(複合)소재로서는 수피마(Supima)면으로 뽑은 “엘피마”, 수피마면과 앙고라(angora)모를 혼방한 “그레이스 코트(Grace cot)”를 전시하였다. 또한 코튼과 나일론 스테이플(nylon staple)로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 “소프라이트(Soflight)”, 폴리에스터와 면을 짜 맞춰서 “빈티지 패션(vintage fashion, 옛적의 옷이나 장식 등으로 풍기는 고풍의 맛)”을 살린 내추럴한 질감(質感)과 독특한 색감(色感)을 표현한 “믹스티진(Mixty jean)”도 신상품으로 전시하였다.

“캐주얼과”에서는 직물이나 니트지의 표면을 살살 긁어서 가는 섬유를 기모(起毛)해 준 “퓨어 스웨드(pure suede)”의 세탁가공품을 전시하였다.

“진즈과”에서는 컴팩트 슬럽(compact slub)의 “클리어 스카이”, 32 DIP로 염색한 “다크·레드·블루(Dark-red-blue)”, 듀폰(Du Pont)의 바이컴포넌트(bi-component) 폴리에스터를 소재로 사용한 “T-400”을 세 기둥으로, 이들을 적절

히 짜 맞춘 여러 소재를 발표하였다.

“니트과”에서는 특수방적사 “코레나 스판”으로 아름다운 보더(border)무늬 (천의 변의 테두리 부분만을 장식한 무늬 - 치마, 커튼용)를 표현한 소재, “크로스 스판”을 사용하여 천의 표면에 잔털이 적어 깨끗한 맛을 강조한 소재 등을 전시하였다.

“원료·원사과”에서는 깨끗한 실로서 광택이 좋은 “주얼리 애버뉴(Jewelry avenue)”를 출품하였다.

“리빙과”에서는 “초목포(草木布)”, “향직포(香織布)”, “도사포(島絲布)” 시리즈를 전시하였고 모자종류에서도 아이টে를 넓히고 있다.

“유니폼과”에서는 고상한 광택이 나는 “울트라트윌(Ultra-twill)”, 일본의 독특한 맛을 풍기는 소재 “고직암(古織庵)”을 전시하였다.

“테크니컬 코너”에서는 난각막 프로테인(卵殼膜 protein)의 특성을 천연섬유에 응용한 피부에의 신가공소재 “큐피드(Cupid) 탄생”을 발표하였다. ♣